

7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박지현, 한혜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443 1. 연구배경

444 2. 연구목적

445 3. 연구방법

447 4. 연구내용

447 1) 대전광역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461 2) 작은도서관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462 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전략토론회 개최

464 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5개년 운영계획 수립

466 5. 대전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발전을 위하여

468 6.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2007년 3월에 창립되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 과정에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으로 16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이 된 협의회는 10주년을 맞아 대전지역 작은도서관들의 현황과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각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활동가들도 필요하며, 작은도서관 활동의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작은도서관들이 연대하는 네트워크 활동이야말로 도서관의 출발과 더불어 작은도서관이 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네트워크는 ‘개별 마을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으며, 서로 잘하는 점을 배우고, 실패한 점에서도 배우며 한걸음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다.(2016.최순연)’라는 활동가의 말처럼 작은도서관은 마을에서의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하면서 그리고 대전시의 전체 작은도서관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관계 속에서 성장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고민은 단지 협의회 소속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2014년 대전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작은도서관을 만나게 되었다.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문을 닫고 있던 공립문고가 사람이 모여면서 다시 개관하게 되었고,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자 문을 여는 곳들이 요청하여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작은도서관의 문은 열었지만 부족한 책 지원비와 주민들의 자원봉사 품으로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주민이 운영을 책임지다 보니 운영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했다. 대전시나 시립도서관에서 마땅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협의회와의 교류가 ‘어디에다 물어볼지 알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운동의 성과로 새로운 모습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자체에 의해 등장하기도 하게 되었으며,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활동들이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중화되기도 하였다. 이제 협의회와 마을어린이도서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부족의 문제, 자원활동가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가 되었다.

대전의 마을어린이도서관들은 마을별로 도서관을 만들면서 동시에 서로 돕는 네트워크 기구인 협의회를 동시에 만들고 활동하였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마을도서관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주시기도 하며 도서관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기구가 되기도 하기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함께하는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동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대전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2백개가 넘지만 운영이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었다.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노력을 ‘저비용 고효율’에만 치중되어 저예산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에만 치중하고 인력과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 고민은 없다. 그러다 보니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대전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건립확대가 아니라 내실화를 위한 방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시는 2012년 대전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 판단된다. 대전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에 근거해 현황을 파악해보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은 운동으로 시작되었듯이 현재 작은도서관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돕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이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 여겨지고, 공립 작은도서관들의 부실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라 여겨진다.

2017년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일에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대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대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요인으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용자가 많다는 정량적인 측면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설립되어 필요한 지역에서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아이만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현재 협의회 이외의 도서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황과 요구를 알아보는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일과 네트워크의 힘으로 대전시의 작은도서관 진흥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해보는 실천을 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마을어린이도서관들과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이 대전의 다양한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나

누고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전시 작은작은도서관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작은도서관의 요구를 답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하는 것이다. 진흥조례를 개정해 작은도서관 전문가와 행정,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작은도서관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대전의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작은도서관 운영진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하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협의회 소속 도서관들이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면서 힘들지만 함께 연대해왔던 것이 이제는 각 마을의 작은도서관이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 소속 도서관 이외의 도서관들은 네트워크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역력이 되면 연대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로 개별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대전의 중장기 계획에 운영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그러한 경험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대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구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의 실천을 통한 실태를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얼굴을 보고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한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① 실태 조사

* 2004년, 대전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문고 현황 조사 이후 2017년 현재 대전의 작은도서관의 수는 70개에서 223개로 늘었다. 작은도서관들이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들여보면서 대전시가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제정했는데 이후 작은도서관 현장에 대한 지원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 실태조사의 결과가 대전시 작은도서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실태조사는 대전의 공,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실태조사 문항구성과 실태조사 과정을 협의회 소속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구별 작은도서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	
중구	50개
동구	29개
서구	37개
유성구	72개
대덕구	35개

대상	대전시 공, 사립 223개
기간	2017년 4월 28일~5월 17일
방법	이메일, 전화면담, 현장방문

* 대전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토론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전의 상황이 전국, 타 지역 상황에 비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작은도서관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운영자, 협의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대전시에게 요구할 것은 무엇인지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무원, 의원과 간담회

2016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는 대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도서관들 간에 자원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도서관학교를 진행해보았다. 분기별 교류회를 통해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개별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워 네트워크 모임에 오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래서 2017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전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작은도서관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모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구별로 모임을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 작은도서관 구별 네트워크 모임 개최

2017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223개 전체 작은도서관에 제안문을 보내고 동의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문항 검토, 실태조사 결과 공유, 중장기 발전계획 논의 등의 내용으로 자치구별 모임을 4회 진행하고자 한다.

* 워킹그룹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로 작은도서관

관을 대표하여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시, 도서관학계, 시의원이 참여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로 구성한다.

횟수는 3회로 대전시 문화예술과를 제안단위로 하여 추진한다. 운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합의 하고자 한다.

③ 작은도서관 현장 방문과 인터뷰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활동가들을 만나서 현장 활동 내용을 들어보고, 어려움과 요구사항들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구분/자치구	대상	인원	일정
동구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핵심활동가	5명	5월9일~17일
중구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핵심활동가	8명	5월9일~17일
서구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핵심활동가	7명	5월9일~17일
유성구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핵심활동가	10명	5월9일~17일
대덕구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핵심활동가	5명	5월9일~17일

4. 연구내용

1) 대전광역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분석은 먼저, 공립과 사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서구, 유성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되었는데,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주민모임에 위탁하기도 하였다. 유성구는 단체장의 공약으로 10곳이 추가 건립되었는데 주민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으로 협의회 소속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구는 한 번씩 공간 리모델링한 모습으로 닫혀져 있는 곳이 많았다. 사립은 협의회 소속 도서관이외에 종교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부설이 많이 차지하였다. 대체로 공공적 운영이 많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용자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외에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자체의 관리도 미흡하지만 작은도서관들 스스로가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였다.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서로 도움도 줄 수 있지만 네트워크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할 것이다. 공동체적이고 공익적인 작은도서관들의 활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는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자치구별로 작은도서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구별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작은도서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공, 사립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정책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양한 책을 갖춰놓고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며,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었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은 안정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시간을 채우기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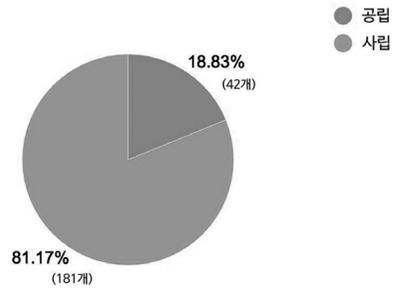
벽찬 상황이었다. 5년 이상 운영된 작은도서관들에서는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도서관이 건립되는 초기에는 개별도서관 체계를 갖추느라 바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도서관의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방안과 연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작은도서관 규모

① 대전시 작은도서관 공·사립 비율 (2017년 4월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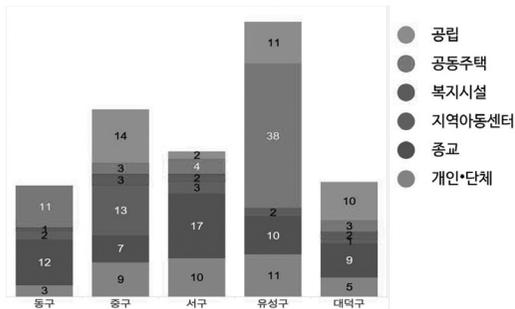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공립, 사립 비교
(전체: 223개)

223개	공립	42개	18.83%(19%)
	사립	181개	81.17%(81%)



②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자치구별)



☞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를 보면 자치구 지역의 특색이 드러난다. 동구는 공립문고가 없고 사립이 전부이며 그 중 종교시설이 운영주체로, 중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주체로, 서구는 종교시설과 민간단체(주민모임포함)에서 설립 운영하는 곳이 높게 나타났다. 유성구는 신규아파트들이 많은 들어선 지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500호 이상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조항이 있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많이 차지하였다. 대덕구는 주민센터 건물에 공립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수도 공·사립이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③ 2017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작은도서관

188개	동구	21개
	중구	34개
	서구	34개
	유성구	68개
	대덕구	3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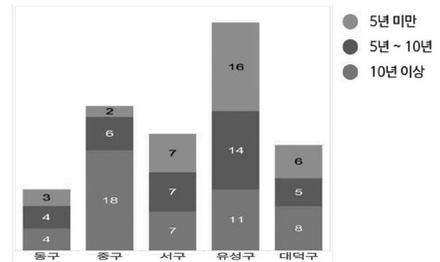
<188개중 118개 응답: 응답률 63%>

☞ 전화 연락 및 현장방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문고로 시설등록하고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센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휴관, 폐업 등의 도서관들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작은도서관은 제외하였다. 중구의 공립문고는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로 조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 조사거부에 대한 이유로는 실태조사가 현실적 변화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성구의 경우는 아파트 도서관이 많이 차지했는데,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이어야 됴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주민만을 위한 도서관도 있었다. 유성구의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각 마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에서 지원금으로 책을 구입하는 현실에서 아파트를 개방하는 조례규정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④ 대전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연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동구	3	4	4
중구	2	6	18
서구	7	7	7
유성구	16	14	11
대덕구	6	5	8

대전시 작은도서관 설립연도(자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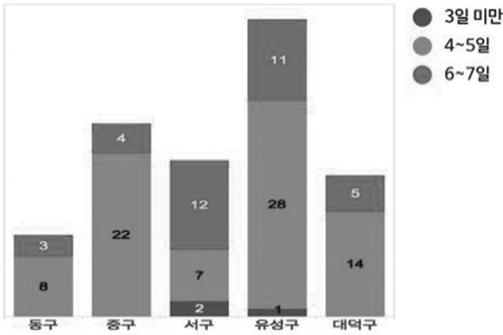


☞ 설립연도를 보면 중구는 건립된 지 10년 이상의 도서관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성구는 신규아파트 단지 건설과정에서 설립된 작은도서관들이 많아 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에서 10년 사이의 도서관 운영자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공간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무래도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지고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다보니 그런 요구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라 추측된다. 10년 이상 운영된 도서관들 중심으로는 공간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집기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⑤ 운영시간에 따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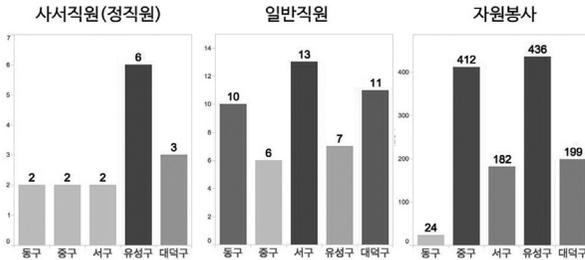
1주일 기준, 도서관 운영일



☞ 작은도서관 운영일은 공·사립을 합쳐서 한주에 4~5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7일 운영일이었다.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서 주 5일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보면 운영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운영시간 면에서 작은도서관들의 개관시간은 오후 1시 이후인 곳도 제법 많았다. 이용자가 많이 없다는 것도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⑥ 운영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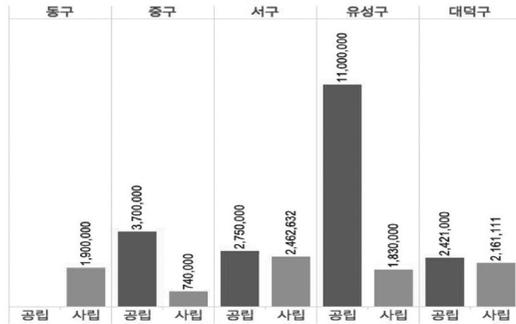
자치구별 인력현황(단위 : 명)



☞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정직원은 배치되지 않았다, 사립 작은도서관 중 일부에서 사서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원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주민센터 공무원이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결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에는 전담인력도 없고, 사서직원도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작은도서관 활동의 지속성과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⑦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자치구별 지원현황(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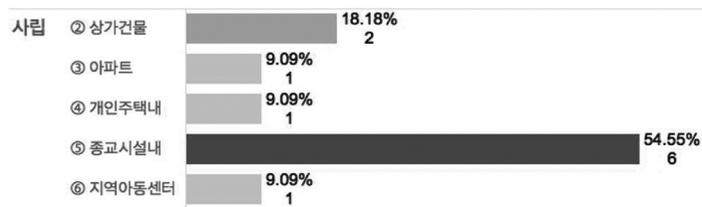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도서관의 개수와 지원기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평균 액수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운영상황과 상관없이 공립은 일정금액을 사립은 등급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고, 공사립이 큰 차이가 없는 자치구도 존재한다. 유성구를 제외 하면 가장 높은 지원금액이 공립의 경우는 5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는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공립의 경우도 최고 3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까지의 격차가 존재한다.

나. 세부 문항별 응답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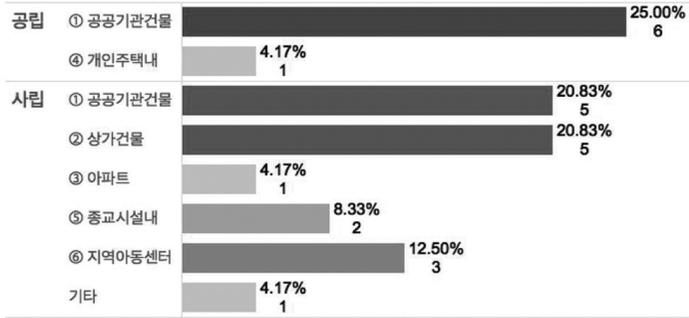
①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건물에 대한 문항

-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동구 응답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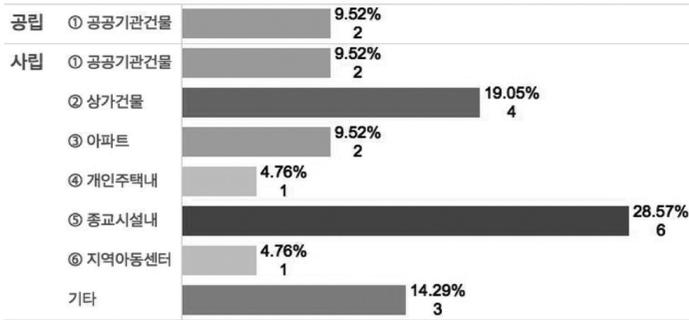


*공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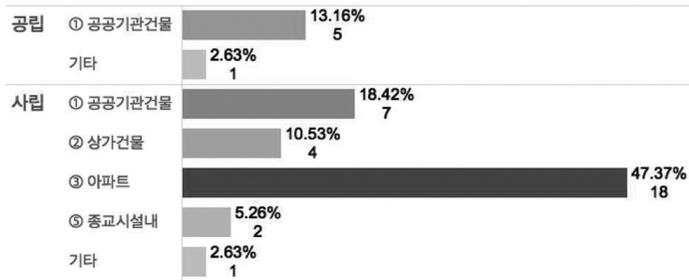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중구 응답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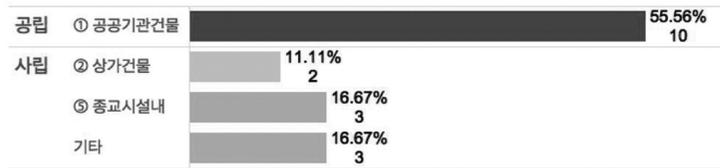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서구 응답 21개)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유성구 응답 3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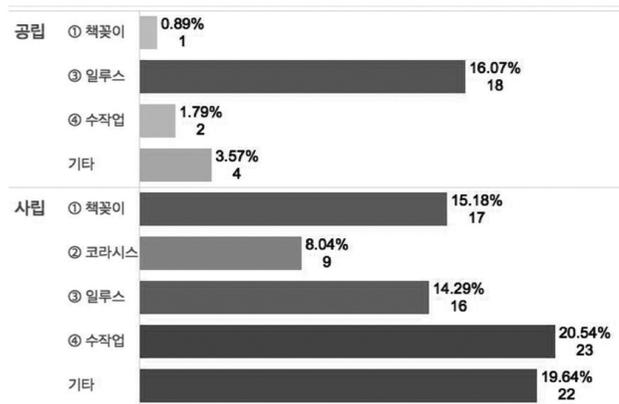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대덕구 응답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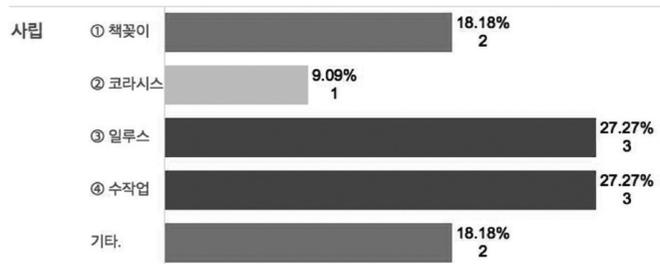
☞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종교시설 내, 지역아동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에 개방한다하여도 지역주민 누구나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

② 도서대출 프로그램 구비여부와 작은도서관 대출프로그램 문항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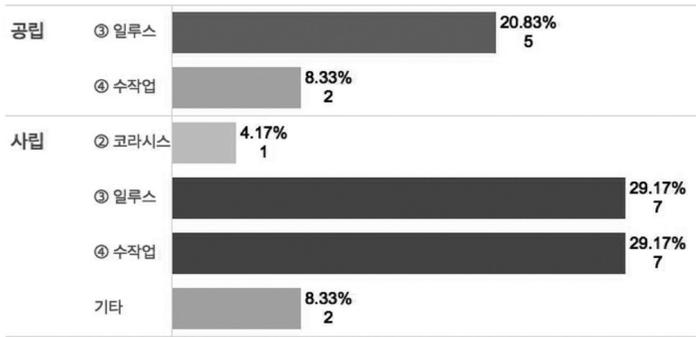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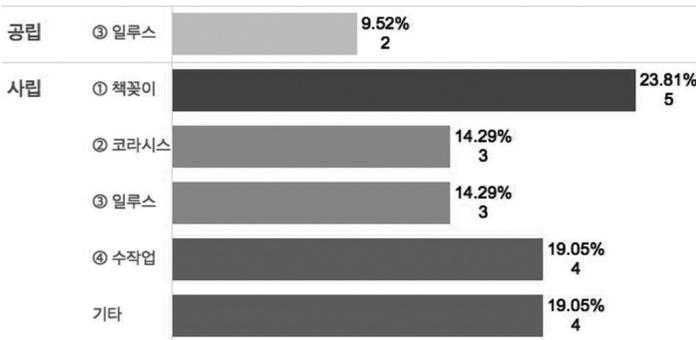


*공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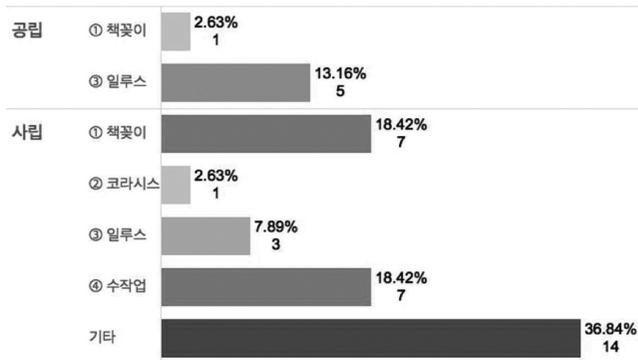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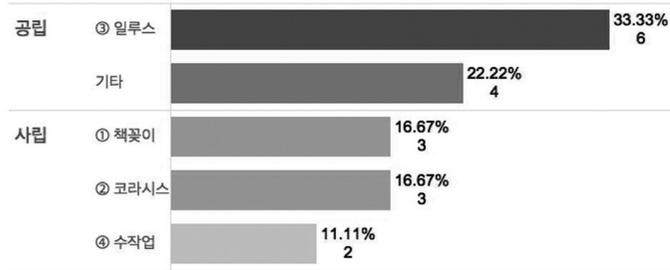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서구)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유성구)



3. 도서대출 관련 설문입니다. 귀 도서관이 사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대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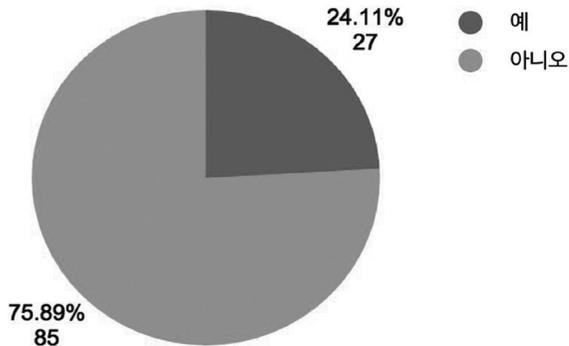


☞ 사립 작은도서관 중 여전히 수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밭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과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행해왔던 일루스 프로그램 지원이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작은도서관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코라시스를 무료로 받아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주 자치구 사립도서관 운영자 간담회에서는 코라시스 프로그램이 잦은 문제를 발생하여 작은도서관 사용이 쉽지 않으니 일루스 지원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③ 공공도서관과 연계협력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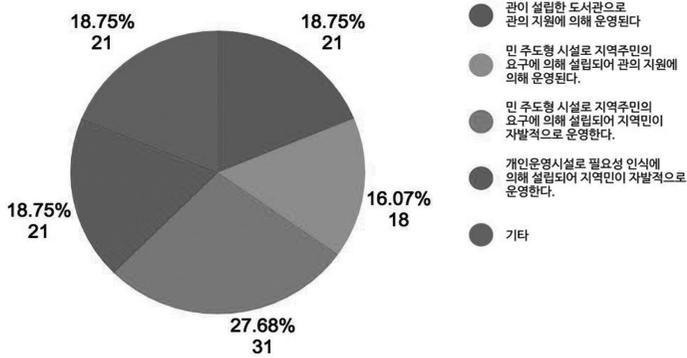
4.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이 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고 있나요? (전체)



☞ 상호정보협력망이라면 전산시스템의 통합부터 프로그램 교류, 사람의 교류까지가 포함된 협력을 말하는 것이었다. 시립-구립-작은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상호협력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예산을 몇 배 들이는 것보다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형태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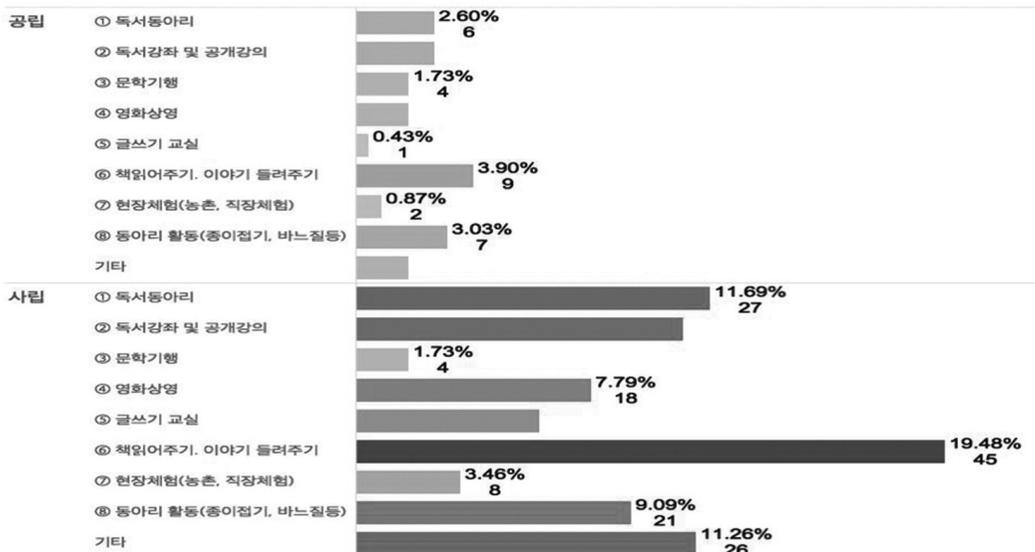
8. 귀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전체)



☞ 최근에는 주제별 특화도서관, 특수 목적에 의한 작은도서관 설립도 늘고 있다. 다문화도서관, 과학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등.

⑤ 작은도서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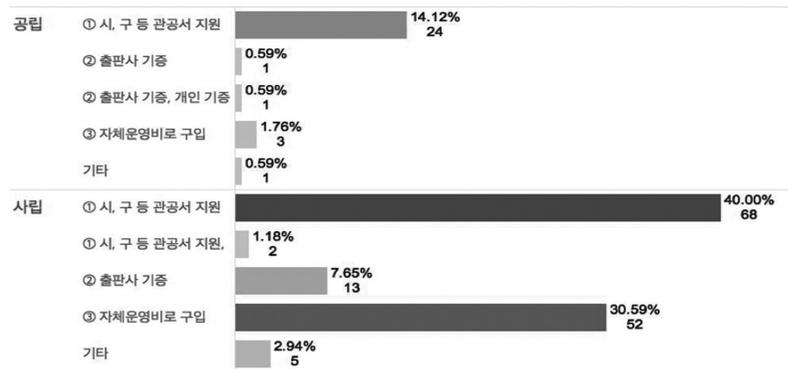
9. 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복수가능) (전체)



☞ 2004년 실태조사에는 방과후 취미교실이 11%로 높게 나타났었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쳐 왔던 민간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책읽어주기 문화, 독서강좌, 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편적인 작은도서관 문화가 되었다. 공립에 비해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에 비해 사립이 자원활동가의 참여가 높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⑥ 도서관 자료구입 방법

10. 귀 도서관에서 도서 및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복수가능)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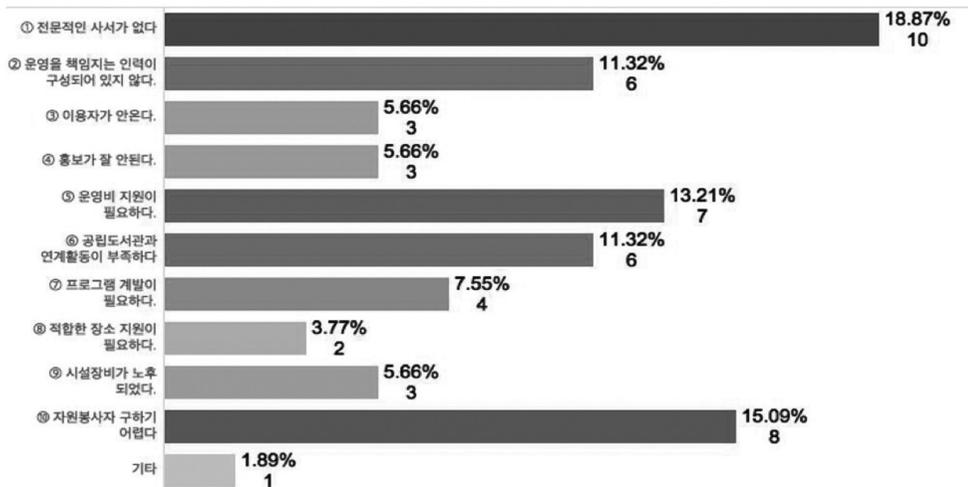


☞ 작은도서관들의 자료구입에서 대전시와 자치구의 도서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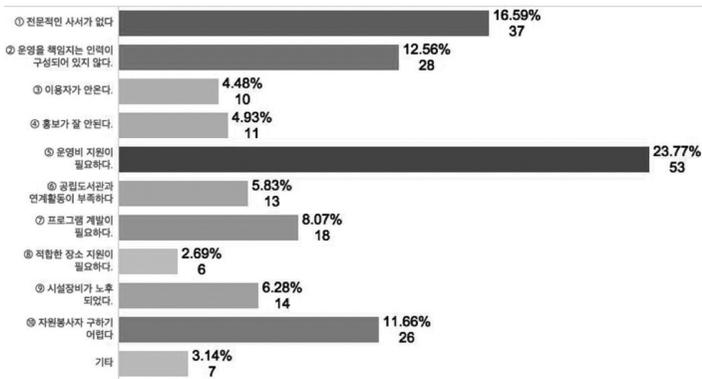
다. 주관식 문항

①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묻는 문항

12.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선택해 주세요. (3가지 가능) (전체-공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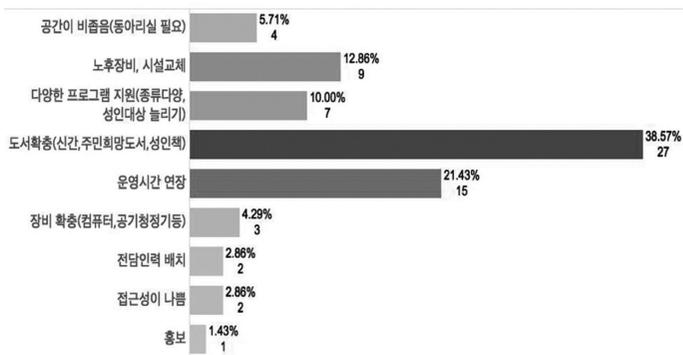
12.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선택해 주세요. (3가지 가능)
(전체-사립)



☞ 대전의 작은도서관에서는 공·사립을 포함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다. 전문사서, 운영을 책임질 인력, 자원봉사 구하기 어려움까지 함께 하면 41% 나 차지한다. 그 다음을 이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 외에 공립도서관과 연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설장비의 노후화 문제, 홍보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묻는 문항

13. 최근 귀 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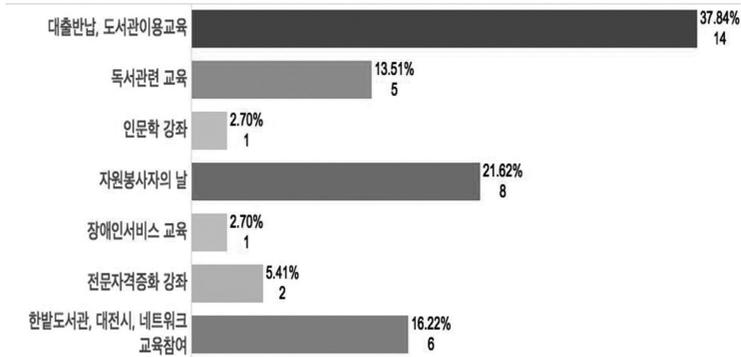


☞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 도서 확충이 가장 높았는데 신간, 다양한 연령에 맞는 책 구입, 주민이 희망하는 책 구입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요구로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 때 개방과 주말개방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고 한다. 노후시설과 장비교체에 대한 요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실 필요 등이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처음에는 작지만 동네 가까이에서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은 예산과 공간으로 도서관을 설립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요구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요구하는 수준이 갈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인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선택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 그 외 요구 : 다양한 강사구축 필요, 대출권수 늘리기, 도서정리 필요, 자원봉사시간 인정,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유아와 성인 공간 분리 필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책부족, 다독상 표창, 강좌의 지속성, 동아리활동 지원

③ 작은도서관 자체로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묻는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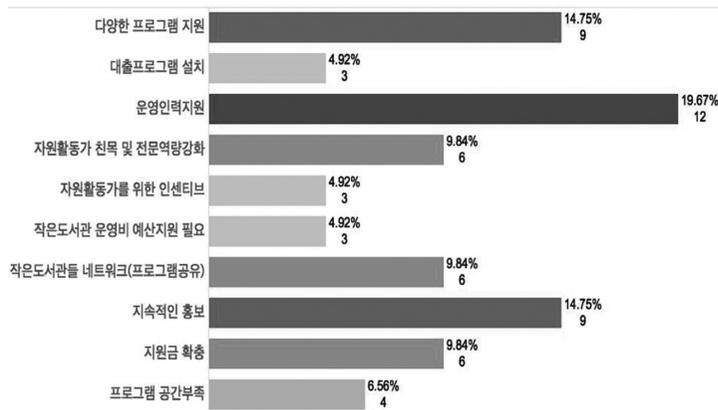
14. 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근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적어주세요. (주관식)



☞ 대전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이 주민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도서관 운영에는 도서관이 위치한 마을의 환경에 따라 책을 선별하여 서가에 꽂히기까지, 그리고 주민들의 원하는 책을 권하고, 흥미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민주시민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적인 일까지 주민의 자원봉사로 맡겨두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함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은 많지 않았다. 사립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밭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간헐적으로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대전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을 묻는 문항

15. 귀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제안 할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으로, 또한 일회적인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안하는 활성화 방안을 보면,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함, 사회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필요, 비전있는 프로그램 기획개발, 장애도서관 필요, 유연한 사업비 운용,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운영 필요, 이용자 욕구조사, 간판제작 필요,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대전시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과제

첫째, 양적으로 늘어난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각 구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은 폐관을 권고하고,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의 실태에 근거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사립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또는 자치구별 예산지원 규모의 차이도 유성구와 동구의 차이는 10배나 된다.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리에도 동서 지역별 격차가 심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서지원비만 지원되어 책이 문고 안에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도서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된다.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지원금과 방식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서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만나 교류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간접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며, 자체로 진행할 수 없는 도서관 자원활동가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 세미나는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모시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의 역사가 오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교류를 통해 자원과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래되고 노후한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공유지가 있으면 공간 이전까지도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셋째,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 보면 공·사립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자와 주민들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의 자원봉사만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는 어렵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주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는 작은도서관 문화를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

넷째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사립 네트워크, 작은도서관들 간의 네트워크 교류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 공유부터, 도서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교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정기적인 만남으로 자원활동가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민·관의 정기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민관네트워크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진흥조례에 민·관 운영위원회가 설치하고 정기적인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지역주민의 높아지고 다양해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고자 하며 마을 강사진도 구성해서 다른 지역과 교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주민들은 정보에 민감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일상적인 시민 참여의 장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 운영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민모임을 조직관리할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는 대전시 작은도서관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2017년 대전의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이후 대전시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요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체 문항을 검토하고, 각 자치구별로 협의회 회원도서관이 제안하는 형태로 하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들과 모여 문항을 검토하고 대전시 전체 작은도서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심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자치구	일시	참석
동구	4월18일 오후 2시 /ngo센터	사립 작은도서관 3곳
중구	4월12일 오후 4시 /짜공도서관 7월 28일 오후 6시/짜공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5곳
서구	4월7일 오후1시 / 작은나무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5곳
유성구	4월7일 오후2시 / 모퉁이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5곳
대덕구	4월21일 오전 10시 / 마루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7곳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문화에 소외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협동조합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구비되도록 홍보도 하고요. 영상 자료화하여 만들어 놓는 일을 합니다.....장애인, 다문화 등 약자가 배려되는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 이럴 때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한 매뉴얼이 쉽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도서관이 혼자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들과 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가 구별로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가 도서관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변함이 없어요. 다른 도시는 책읽는 도시 등의 정책을 펼치는데 대전은 책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함께 연계하면 가능할까요?’

‘대전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구청에서 도서 지원비를 주면 그냥 받았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리를 통해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작은도서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함께 모여 문항을 검토하고, 대전시 진흥조례와 자치구 조례를 공부하였다. 참여한 도서관들이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활동이었다는 의견과 그래서 의미 있었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리고 자기도서관 설립목적을 이야기해보는 것 자체도 그동안 잊고 사업 진행하기만 바빴던 일상에서 작은도서관을 왜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다는 평가들을 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전시의 진심어린 관심과 정책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물론 대전시가 만들어지는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이것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바라고 설립하는 도서관도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면 또 다시 작은도서관을 하는 이유를 묻곤 하였다.

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전략토론회 개최

① 목적

- 대전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지자체, 전문가가 모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함

② 내용

- 일시 : 2017년 5월 31일 오후 2시~4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
- 주최/주관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대전광역시의회
- 참석 : 공,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 80명
- 세부 진행

구분	시간	내용	진행
개회식	14:00~14:15	개회	여선정 (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격려사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내빈소개 및 인사말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김계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상임대표 유 미 대덕구 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대표	
주제발표	14:15~15:00	주제발표 박지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정책분과장 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김보일 나사렛대학교 교수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정책토론	15:00~15:50	지정토론 강영미 모퉁이어린이도서관 관장 김혜정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장 문용훈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장 조성남 (사)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	
종합정리	15:50~16:00	토론결과 종합정리	
폐회	16:00	폐회	

-개최 결과

시의회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관심있는 활동가, 자치구와 대전시 담당공무원, 시민단체들까지 80여명이 참석하여 대전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뷰에 의해 조사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지역 작은도서관 지원방향과 발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대전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의 제안과 대전시의 동의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협의회, 대전시, 전문가,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5개년 운영계획 수립

①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실행

- 배경

대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협의회에서 주관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토론회 결과로 구성되게 된다. 대전시 문화예술과가 주도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초기 협의회의 제안은 도서관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대표하여 협의회가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을 제안하였으나 대전시가 실무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다보니 운영 초기부터 이견이 발생하였다.

- 구성

대전시 문화예술과,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5개구 작은도서관 담당자, 구에서 추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15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 논의 내용

대전시가 계획안을 준비해오고 실무단위들이 모여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2018년 9천2백확보위해 노력)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금 중 도서구입비외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30%→40% 늘린다.

둘째,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간담회를 년 1회 실시하겠다.

셋째, 운영실무자들의 교육을 기초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으로 수준별 교육으로 내용을 갖춰 실시한다.

넷째, 구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외에 순회사서 공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구축, 건립 및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 결과

협의회와 시의회가 함께 진행한 토론회 결과로 구성 운영된 것이 작은도서관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킹그룹 구성부터가 난항을 겪었다. 워킹그룹에 대한 상이 달랐고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자치구 작은도서관 담당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여 계획수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다만 이 회의에서는 구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이 모두가 이견 없이 넘어갔다. 또한 협의회가 대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경험을 공유해주고 먼저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받게 되었다.

② 대전시 5개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 2017. 9. 8 (금) 14:00 (50분)

장소 / 대전예술가의집(다목적회의실, 4층)

참석자 /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운영자 20여명

-내용 : 좌 장(1) : 박정현 의원 (의회)

토론자(3) : 김혜정 과장 (한밭도서관), 박선례 대표 (학의뜰 작은도서관)

박지현 정책분과장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내용 : 대전시 작은도서관 5개년 계획 수립안 발표 및 토론

-결과

워킹그룹 운영에서도 나타났지만 대전시의 중장기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고, 자치구 소관이라는 말로 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는 계획서였다. 지원예산의 추가확보 외에 작은도서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간접예산도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한마당이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위한 단계 별 교육을 시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이것을 대전시가 혼자 기획하지 말고 협의회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부 참여자가 대전시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성구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워킹그룹 운영에서도 제기했듯이 대전의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는 이것을 지원해야하며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협의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대전의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③ 조례개정의 필요성 제기

대전시는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의 방향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지 못했다. 작은도서관 전문가, 운영자, 이용자를 포함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등을 논의할 기구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요구가 지자체에 전달될 통로가 없었고 이번 협의회는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번 2017년 회기에 대전시의원과 함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대전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발전을 위하여

이번 연구는 10년을 맞이한 대전의 마을어린이도서관 운동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그리고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네트워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협의회 네트워크가 되고, 지속가능한 대전의 작은도서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하는지 협의회 소속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작은도서관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협의회 네트워크를 대전시로 확장해보고, 대전의 작은도서관들과 함께 가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위해 몇 가지 실천을 함께 하였다. 10년을 맞아 223개 작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대전의 작은도서관들과 만났던 교류회 장에서 나온 욕구조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대전시의 작은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시의회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대전시에게 대전의 작은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노력해왔던 것에 비해 대전시는 10년과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퇴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쏟아냈다. 작은도서관들이 예산이나 바라는 이익집단으로 보고 대화의 상대로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워킹그룹 논의의 자리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작은도서관들은 지원예산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작은도서관들끼리 교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며 교류의 장은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구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인 우리가 우리를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해 볼 것인지, 물론 정량적인 부분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작은도서관이지만 공익적인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문항을 함께 검토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이 학습의 장이 되었고, 결과로 현장을 방문하며 대전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실태조사를 분석하면서 대전시에 요구안을 만들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먼저 이야기 되었다.

작은도서관이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배우고 갖춰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끼리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현재 지자체는 행정 편의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방안이라 생각하며 공립도서관을 건립할 때, 건물만 짓고 운영의 책임은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들이 힘을 합쳐 운영을 책임질 인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하기도 한다.

이에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도서관 건립의 목적과 가치를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변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은 작은도서관 현장의 고민과 요구가 담기게 만들어 저야함에도 토론회 몇 번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작은도서관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작은도서관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또한 작은도서관들이 함께 모이고, 학습할 때만이 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0년을 맞이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회의 과제가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연구였다. 10년 운동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대전의 작은도서관들과 발 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방향에 대한 합의와 조직 정비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작은도서관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작은도서관 운영과 네트워크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무엇보다 10년 이후를 바라보며 협의회가 지켜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네트워크 확대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6. 참고문헌

- 김소희외(2013). 책으로 꿈꾸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서울:청어람 미디어
- 김용분(2010). 정부주도와 NGO주도 정책과정모형의 정책효과성 비교분석: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박미라(2012).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의미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11차 총회(2015).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10차 도서관학교 자료집(2015).
- 대전광역시 공사립문고 실태조사(2004).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성과와 만족도 조사(2008).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3년 과정 정리보고서(2009).
- 최진욱(2008). 작은도서관 운동사. 디지털도서관 2008년 봄호(통권 제49호).
- 김해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2012).
-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진흥조례.